

사후 20년만에 5·18 유공자 된 故 김천배 前 광주YMCA 이사

계엄군 탱크 맨몸 저지 광주 실상 세계에 알려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했던 광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인사가 유명을 달리한 지 20년만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됐다.

지난 1988년 세상을 떠난 고 김천배(사망 당시 72세·사진) 전 광주YMCA 이사. 그의 유가족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수차례 진행했던 5·18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다.

스스로 공을 내세우려 하지 않았던 고인의 평소 생활 태도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고인의 뜻을 훼손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지만 고인이 겪었던 일을 가족사만으로 가늠하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광생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김씨의 운명은 5·18로 인해 급변했다. 1980년 5월 광주가 공수부대의 살육에 휩싸였을 때 김씨는 광주 재야의 대부격인 고 흥남순 변호사 등과 함께 시민수습대책위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활동했다.

일본 간사이대학원과 미국 예일대학 신학부에서 수학했던 그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광주 현장을 취재하던 외신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광주의 실상을 알렸다. 그는 계엄군 탱크의 광주 진입을 막기 위

에 시달리다 급성심근경색으로 한달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석방됐으나, 1988년 3월 10일 광주 기독교원에서 민주화의 새벽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았다.

오랜 도피 생활로 건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데다 치명적인 폐렴까지 겹친 것이다. 가족들은 김씨가 사경을 헤매 때 호흡연장 장치인 산소통이 자주 고장난데다 호흡마스크와 연결된 호스가 자주 빠졌던 점, 결

정적인 사인이 산소 공급부족이었던 점을 들어 아직도 고인의 죽음에 의문을 갖고 있다. 가족들은 김씨의 유해를 망월동 구 묘역에 안장했다. 그동안 5·18 보상이 수차례 이뤄졌지만 유공자 인정신청은 물론, 보상 신청도 하지 않았다.

김씨의 딸 은경(66)씨는 “민주화 유공자 신청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아닌 아직도 조심스럽다”며 “5·18 유공자 인정을 계기로 아버지가 광주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던 의로운 ‘광주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씨를 5·18 유공자로 인정할지 의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수배·투옥·고문...88년에 후유증 사망
고인의 뜻 따라 유족들 보상 신청 안해
“가족사로만 남길 수 없어” 뒤늦게 신청

전남 ‘마약 청정지대’ 옛말

마약사범 급증세 올 111명 적발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 비해 비교적 ‘마약 청정지대’로 알려졌던 전남에서 올 들어 100명이 넘는 마약사범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마약 청정지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9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모두 111명으로 이 중 18명은 구속되고 나머지 9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 가운데 38.7%(43명)가 서울·부산·경남지역에 집중되긴 했지만, 전남에서도 구입 또는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순천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은 이날 전국을 무대로 현금과 귀금속을

출처 필로폰을 구입한 뒤 이를 전국에 유통한 이모(48)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2004년부터 모텔과 빌라 등을 돌며 10여 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출처 필로폰을 구입,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일당으로부터 500명 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5.9g(5천만원 상당)과 귀금속, 외화, 여권 등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훗친 전자제품 등을 중국으로 빼돌려 판매한 뒤 중국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여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판매총액과 필로폰 구입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여권과 외화가 대량 발견된 점으로 미뤄 마약 외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도 이날 히로폰을 유통한 혐의로 이모(38)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전남·북 일대 투약자를 상대로 1회분에 20만원씩 받고 파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2천8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필로폰 이외에 신종 마약이 끊은 층에서 확산하면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난 28일 오전 5·18묘지에서 열린 고 윤한봉 선생 1주년 추모식에서 극단 ‘토박이’와 ‘신명’이 고인이 살아 생전 기뻐했던 ‘돼지파동사건’을 극화한 추모극을 선보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윤한봉 선생 1주년 추모식

‘5·18 최후의 수배자’ 고 윤한봉 선생의 1주년 추모식이 지난 28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이날 민주묘지 내 ‘역사의 문’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이부영·노회찬 전 국회의원, 문규현 신부, 유가족 등 400명이 참석했다. ‘함수 윤한봉 선생 1주기 추모식 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추모식은 소설가 조광희씨의 추모사를 시작으로 이학영씨의 추모시, 극단 토박이·놀이패 신명의 추모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씨는 추모사를 통해 “그대의 죽

음으로 광주의 5·18 민중항쟁이 완성됐음을 옛 도청 앞 광장에서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 “추모식 준비위원회”는 이날 ‘윤한봉 선생 기념사업회’를 설립하고 추모사업으로 문규현 신부를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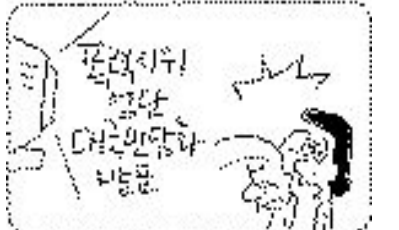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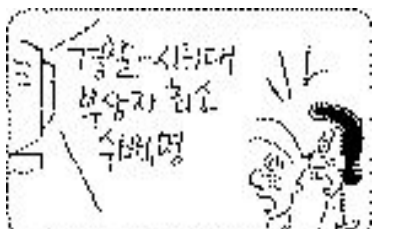
추모식이 끝난 뒤 추모객들은 5·18 민주묘지 내 묘역에 둘러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한편, 국내 유명 작가들이 출품한 윤한봉 선생 1주기 추모 그림전이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7일 동안 5·18 기념재단 1층에서 열린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의붓딸 상습 성폭행 탈북자 영장 신청

광주북부경찰은 29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탈북자 한모(38)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8일 새벽 4시에 광주시 북구 용봉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 A(13)양을 성폭행하고, 아내(38)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543) 김장우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공장 : 061) 337-0571

흰 사슴 탄생에 주민들 '길조'

○함평군 손불면 사슴농장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사슴(사진)이 태어나 주민들이 길조라며 경승.



○12년전부터 사슴을 기르고 있는 손불면 석계마을 최준기(67)씨는 “지난 25일 오전 먹이를 주기 위해 축사에 갔다 하얀 물체가 있어 자세히 보니 갓 태어난 흰 꽃사슴이었다”며 “마을에 좋은 일이 일어날 길조”라고 희색.

○동물 전문가들도 “흰 사슴이 태어날 확률은 10만 마리당 1마리꼴로 아주 희귀한 경우”라고 설명.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남편 폭력이 부른 비극

폭행에 맞서 둔기 휘두르다 남편 살해

광주 광산경찰은 29일 남편의 폭력에 대해, 둔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차모(여·47)씨를 상해치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7일 밤 9시에 자신의 집 앞 공터에서 남편 김모(48)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15년 전 김씨와 재혼한 차씨는 남편의 심한 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는 재혼 후 4명의 자녀를 낳았으나 술만 마시면 성격이 변하는 김씨에게 잦은 폭행을 당했다. 또 남편 김씨는 최근 재산이 차씨 명의의 된 점을 들어 이

혼을 요구하며 폭력을 휘둘렀으며, 전남 밤에도 위자료 5억원과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에도 차씨는 술에 취해 때리는 김씨에게 찾기에 집 마당에 있던 둔기를 휘둘렀으며, 피를 흘리며 쓰러진 김씨를 본 차씨는 119구조대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차씨는 “단지 맞지 않으려고 찾기에 둔기를 휘두른 것이 이런 결과를 낳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진술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진정한 휴가 기다리는 곳! 함평해변

오래된 특산물 정갈 바다를...
바다를 더 시원한 해안 여름을 즐기세요

<p>함평해변</p> <p>1. 함평해변</p> <p>2. 함평해변</p> <p>3. 함평해변</p> <p>4. 함평해변</p> <p>5. 함평해변</p> <p>6. 함평해변</p> <p>7. 함평해변</p> <p>8. 함평해변</p> <p>9. 함평해변</p> <p>10. 함평해변</p>	<p>함평해변</p> <p>1. 함평해변</p> <p>2. 함평해변</p> <p>3. 함평해변</p> <p>4. 함평해변</p> <p>5. 함평해변</p> <p>6. 함평해변</p> <p>7. 함평해변</p> <p>8. 함평해변</p> <p>9. 함평해변</p> <p>10. 함평해변</p>	<p>함평해변</p> <p>1. 함평해변</p> <p>2. 함평해변</p> <p>3. 함평해변</p> <p>4. 함평해변</p> <p>5. 함평해변</p> <p>6. 함평해변</p> <p>7. 함평해변</p> <p>8. 함평해변</p> <p>9. 함평해변</p> <p>10. 함평해변</p>	<p>함평해변</p> <p>1. 함평해변</p> <p>2. 함평해변</p> <p>3. 함평해변</p> <p>4. 함평해변</p> <p>5. 함평해변</p> <p>6. 함평해변</p> <p>7. 함평해변</p> <p>8. 함평해변</p> <p>9. 함평해변</p> <p>10. 함평해변</p>
--	--	--	--